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, 경기회복 대비 보험사 자산운용전략 수정 필요

□ 신용평가사 무디스(Moody's)와 피치(Fitch)는 각각 리포트를 통해 미국 손해보험산업이 투자자산의 변동성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함.

- 무디스는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자산구성을 보다 보수적으로 전환하였고, 구조화 증권이나 고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힘.
- 피치는 2008년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보험사들의 경우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거나 사업구조가 다각화된 회사들이었다고 지적하며, 이러한 회사들이 모기지 관련 자산과 구조화 증권(structured securities)*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함.
- 그러나 보험사들이 투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식관련 자산비중을 축소하고 단기자산이나 현금의 비중을 늘리는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함.

* 구조화 증권은 자산가치가 주식, 금리, 상품, 신용, 환율 등의 기초자산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증권을 총칭함.

□ 보수적인 자산운용은 자산의 변동성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, 투자자산 상각, 이익률 하락, 경기 회복속도 불투명 등 악화된 투자환경 속에서 장기투자 수익률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음.

- 피치는 현재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금리인상 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인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심각한 장기적인 투자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함.
- 무디스도 보험사가 대규모 재해 손실 등으로 투자자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통해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.

(Business Insurance, 8/26)